

석유화학, 여수에서 농어촌 봉사활동

여수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이 농어촌 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농어촌 주택 지붕개량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곳은 GS칼텍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제일모직, 여천NCC,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한국BASF, 대림산업, 남해화학 등이다.



여수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사회공헌팀을 구성해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및 도배, 장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희망근로 T/F팀은 최근 관내 4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을 받아 돌산읍과 소라면, 울촌면, 화양면지역에서 신청한 19개 가구를 현지 실사했다.

10월8일에는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 7명의 심의위원이 모인 가운데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11월까지 해당가구의 지붕개량을 완료키로 했다.

여수시는 6월부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근로 사업을 하반기 들어 친서민정책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 개량사업을 펼치고 있다.

<화학저널 2009/10/15>